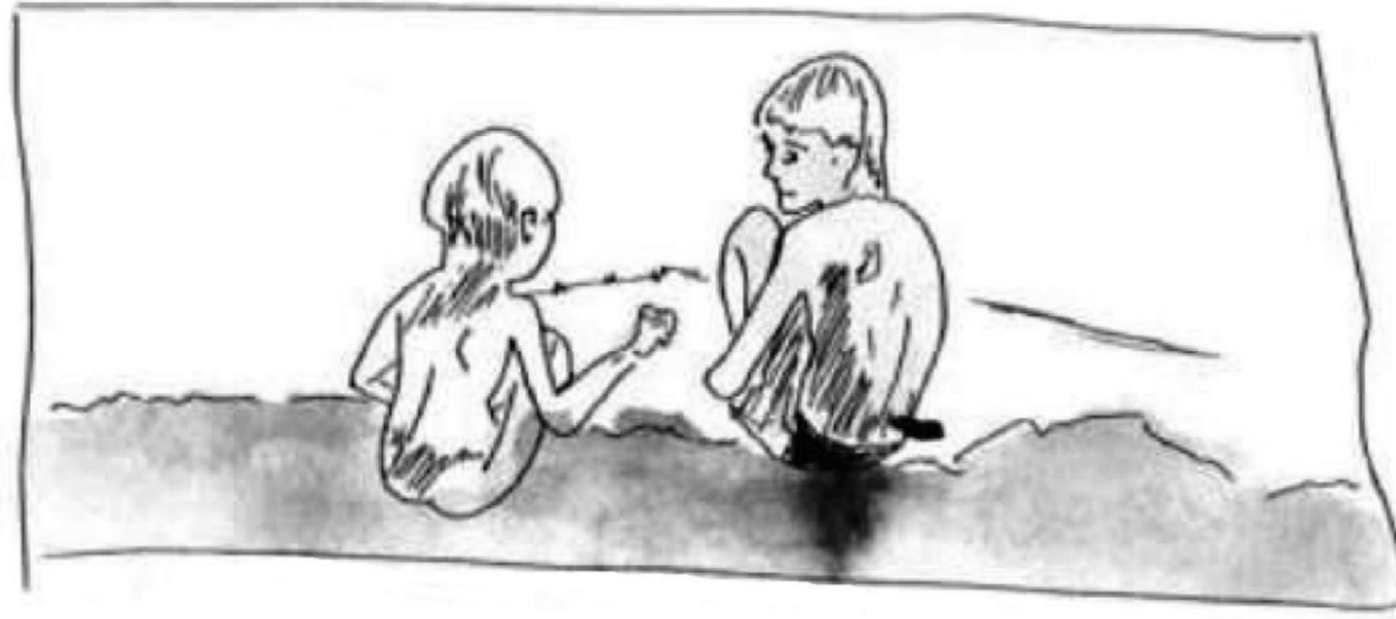


코스 선언문

보건의료의 다양한 영역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1992년 10월 30일 히포크라테스의 섬이란 그리스 코스에 있는 아스클레피온 신전에 모여 다음의 내용을 도출하였다.

- 환자진료의 책임성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에 대한 각성
- 우리의 진료 행위에 있어 정치, 경제, 과학, 기술의 개입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한 인식
- 전적으로 윤리적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고자 하는 선언

인간 권리의 보편성 선언에 연대함에 있어, 개별 인간 존재에 대한 존중의 기본원리를 믿으면서 우리는 다음의 각오를 다지고자 한다.



오늘날 과학의 진보 과정 속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기를 잊지 않는다. 건강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다하도록, 우리는 그의 옆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치료의 선택을 그와 상의할 것이다. 그 이유들은,

개인별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외 없이 그들의 생활양식, 관습, 신념에 대한 존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가 있는 가운데, 모든 환자들에게 의료자원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보건전문가들의 존재 이유는 모든 이들에게 삶의 원칙을 확인하는 건강을 찾는 방법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해도, 어떤 형태로 호소 되는 고통에 있어 우리의 우선적 의무는 그 고통의 의미와, 개인적 혹은 사회적 특수성에 의해 발생한 이유들을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며;

모든 사람들에 있어 보건의료의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주장하고 투쟁하기 위해서이며; 지구 어느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배척, 암살, 고문, 유해물 수출 같은 행위에 있어, 위장된 것이라 해도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이다. 대신, 이들 행위가 무시되지 않도록 우리는 증언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우리는 어떤 실수까지도 숨김없이 대중들에게 밝혀서, 우리가 해를 끼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릴 것이다. 그 이유는 ;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가진 인간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원칙의 혁신과 그로 인한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수용한 원칙을 존중하면서 질병 치유 뿐만 아니라 예방까지 참여하기 위해서 이며;

우리 이웃의 건강은 우리의 목적이지만 수단이 아님을 이해하기에, 건강 서비스 제공에 있어 치유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이다.

이상의 선언문은 1992년 10월 25일에서 30일간 코스 (그리스)에서 유럽보건 열린학교가 주최하여 '새로운 히포크라테스 선언의 가능성: 의료 및 사회적 역할자 입장에서'란 주제로 개최된 제6차 국제회의에서 도출된 것이다. 170명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알제리, 벨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위스의 총 10개 국적을 가졌다. 해당 내용은 다음 책에 불어로 처음 소개되었다. J. Carpentier & C. Mangin-Lazarus, éd. Retrouver la Médecine. Paris : Synthélabo, Collection Les Empêcheurs de Penser en Rond, 1996, pp.229-231 Drawing Guy Barbier.